

62대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지

차수	30차
일시	20. 10. 5. 18 : 30
장소	ZOOM

참석확인 (9/12)

간호	경경	공대	사범	사과	약학	예술	인문	의학	자연	동연	총
○	○	○	○	○	○	X	○	X	○	X	○

□ 보고 안건

1. 단위별 특이사항 보고

- 총학생회 :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예산 확정남. 2학기 예산자치제 보고 : 1학기 이월금액 3,777,521원 + 2학기 1,889,184원 = 5,666,705원. 규정에 의거해 예산 확정 후 첫 중운위 보고, 보고 후 3일 이내 공고 10일간 지원, 10월 7일(수)부터 17일(토) 까지 신청 받은 후 첫 중운위 때 심의 예정. 12일이라는 기간이 충분할지는 고려해 볼 것 같음. 코로나로 신청 단위가 적다는 점에서 많은 홍보도 필요할 것 같음. 한 단위에서 20%가 넘지 않는다면 지원 가능함.

- 자연대 : 29일 단학대회 진행함.
- 사과대 : 23일 단학대회 10월 7일 온라인 학술제 진행 예정
- 간호대 : 22일 단학대회 진행
- 인문대 : 8일에 단학대회 예정
- 경경대 : 6일에 단학대회 예정
- 사범대 : 8일에 단학대회 예정, 지난 학기 예산자치제 중 축구 및 농구 대회 이달 말부터 재개될 예정이라 대회 참가비 반환 없을 것 같음

□ 논의 안건

1. 2학기 학사(중간고사 이후)

- 설문조사 결과 독방에 첨부
- 코로나 현황 : 일별 확진자 수 평균 두 자리수(9/29 113명), 서울/경기관 비중 여전히 높음, 사회적 거리단계도 2단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중간고사 이후 학사가 결정나야할 시기임. 학생분들 의견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 가능.
- 전체 응답자 수 106명 -> 설문조사 관련 요청 드린다고 하셨는데 추가 설문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것인가. -> 계속 진행할 것인데 응답자 수가 적어서 토대 및 참고로 학생회가 방향을 정해야할 것 같음.
- 5단계에 따르면 2단계이면 제한적 대면수업이 될 것 같음. 부분적으로 대면을 희망하시는 교수님이면 대면이 가능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학기 시작쯤에는 전면 비대면을 요구했었음.
- 20명대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서 실기.실습은 방역으로 하되 이론 수업은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교수님들이 원하신다면 학장님의 컨펌을 받고 진행할 수 있도록 나중에 여지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최대한 비대면을 요구해야하는데, 설문조사는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가 아닌 추가적인 데이터나 데이터 없이 주장만 들어가야 할 것 같음.
- 이론 수업에 대해서는 82%가 비대면, 14%는 병행을 희망, 3~4%가 대면을 희망하는 현황, 실험실습은 좀 더 대면 kd의 희망이 많음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고, PHASE2이므로 실험/실기에 한해서만이고,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함. 제한적 대면 수업이라는 것이 이론수업은 비대면을 해야한다고 보므로 학기 말까지 이론수업은 비대면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면 될 것 같음

- 설문조사를 많이 참여해주셔서 그걸 해도 좋은데 더 해도 참여자 표본이 적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먼저 제시한 단계를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 8월 19일 학교 공지사항에 따르면, 제한적 대면수업에 따라 실험/실습 수업에만 따르고 이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반으로, 이론 수업은 전면 비대면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언제까지 적용할 것인가의 시기 : 기말고사까지라고 생각함. 최대한 변동 없도록 PHASE2 유지를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기말고사까지가 맞다고 생각하는게, 중간고사때까지 기간을 잡은 것처럼 시험기간에 갑자기 공지가 변동되거나 확진자수는 예측 불가이므로 중간고사까지를 선례로
- 수능이 이후 논술이나 외부인 출입이 많을 것이므로 이를 추가적인 근거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음
- 수능이나 대학별고사 : 논술이나 지역별 거점 응시 고사장 등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학교도 있어서 학교의 결정을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서울은 어디서 보느냐
- 오히려 재학생이 쓰는 공간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이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유입인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다고 하면 대학 운영에 필요한 절차가 꼭 필요한 행사는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대입전형료도 대학의 수입료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대학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 학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역비용 등이 더 많이 지출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음. 이에 외부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음. -> 논술을 진행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면 진행을 하되 그게 아니면 대책이나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학교에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음.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되면 PHASE2로 하고 기간은 최대한 기말고사 기간까지로 유지
- 중간고사는 비대면 시험이라는 점에서 좀 감독화를 의무화하는 것 등에 대한 이야기가 완료된 부분인지 -> 학교 측에서 피드백 조사 진행했을 때 좀감독에 대해 호불호가 나뉜 것을 학교가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음. 이에 학교
- 의무화를 시킨다면 언제 공지가 되는지 등의 학교 측의 계획 등이 공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교무처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간호대의 경우, 시험도 다 비대면인 것이 사전에 공지가 되었는데, 감독 방법에 대해 교수님 재량에 맡긴다고 하였는데 학교에서 의무화를 시킨다면 그 방침을 따라야하는게 이 부분이 공지가 빠르게 안되면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서. 학교에 재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시험 : 단과대의 경우 대면 시험을 진행하려는 수업이 있는지, 약대의 경우 대면 시험을 보겠다는 교수님들이 계셔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 사범대는 거의 없고 지난 학기에 기말고사를 대면으로 본 교수님은 중간고사는 안 보기로 함. 공대는 파악된 바 없음, 인문대는 과제대체나 미진행 등, 간호대는 전체 비대면 진행 -> 약대의 경우 교학지원팀 통해 교수님들께 파악해보았더니 대면시험이 많은 상황이고 아직 학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사람 -> 학장님 선에서 비대면 시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음.
- 기말고사 때에도 비슷한 논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 임기 종료 시점을 고려해서 이 부분도 함께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2. 총장단 중υν위 공청회

- 오늘 오전에 1차 공문 발송 완료 (10/8~12일 중으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요청함)
- 리더스 포럼 때 못했던 질문 및 2학기 학사 관련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음
- 1차적인 답변을 받아 월요일에 가능할 것 같음. 페이스북 라이브 송출은 어렵다고 답변 전달 받음.
- 굳이 전체 공개로 진행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 -> 리더스포럼은 단과대 대표자 자격으로 가는 것이 전체 공개가 안 되어서 대표자가 가는 것이 아닌데, 학교 측의 입장이 궁금함 -> 학교측의 입장을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전의 다른 행사로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봤을 때 답변 받았던 이야기가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전체공개로 장단점이 분명 존재함. 많은 이들의 귀추가 주목되는 자리이고 많은 정보들이 오고가다보니 단편적으로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대표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것이기에 일반적인 간담회 등이 전체공개로 진행되지 않음.

- 학우분들께서 편안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요구한 것인데, 총장단과 중운위만이 참여하는 공청회의 의미는 잘 모르겠음. 학우분들께서 편안하게 질의할 수 있는 자리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학교 측에서 꺼린다면 중운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 공개 공청회 자리를 따로 마련해서 전체 학우분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공청회를 함에 주치가 전체 학우고 질문을 받는 자들이 중운위와 총장단이라는 점에서 전체공개를 하고 학우분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중운위 모두가 전체 공개 공청회가 이루어져야 함에 동의함. 1차적으로 해당 자리의 성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되, 기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하여 차선택 역시 함께 대비해야 함.
- 사전질의 개념으로 모든 학우분들이 질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임. 논점은 라이브 실시간 송출이나 속기나 녹음본 공개나 등 -> 학교에서는 라이브 송출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 사전질의를 통해 해소가 되지만 실시간으로 대답을 듣고 추후에 추가적인 질의를 할 수 있지만 사전질의를 이가 어렵다는 점에서 실시간 송출이 맞다고 생각함. -> 재차 라이브 송출을 요구할 것이지만 거절할 경우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재차 요구도 학교 측에서 거절한다면 학생분들에게 게시글로 공지하고, 중운위 측에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 날치기 방송
- 확운위에서 가결된 안건이 실시간 학우분들이 참여하는 방식이고, 이를 대체하는 것이 라이브 송출이고 이게 안 되면 중운위 선에서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함. -> 그 안건을 계속 요구하고, 요구한 과정을 밝히고, 계속 거절되었음을 밝히고, 이후 거절에 따라 중운위 차원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학우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확운위도 스태프가 많은데 생방송 송출시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 줌을 통해 학우분들이 직접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관리가 불가능한 네트워크 문제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며 별도 신원확인 절차 역시 수반 되어야 함. 채팅을 통해 질문을 해주시면 중운위들이 해당 댓글을 읽어서 진행하는 방식을 고려중임.
- 본부측에서 방송에 대한 부분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라면 스프레드시트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실시간으로 문서로 전달받을 수 있는 방식을 최후의 안으로도 고려가능 -> 상호간의 양해를 구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고 그러한 방법은 학교와의 신뢰를 잃는 방법이라고 생각함.
- 페이스북 라이브 송출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지만, 학생들의 요구이므로 줌으로 신청 사전에 받아서 진행을 요구하고, 이가 거절된다면 별개로 진행하여 중운위 차원 라이브를 따로 진행하고, 탈곡기 측 인원 참석 하에 총장단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사전 질문지를 받고, 해당 부분들에 관련된 분들이 참석하여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함.
- 혹여 전체공개가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중운위가 질문에 대답을 하는 주체고, 학우분들이 질문을 하는 측이므로 탈곡기 측 인원 중 일부 인원이 학우들을 대표로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함. -> 탈곡기 분들이 총대를 매고 자리를 마련해주시기는 했지만 학생들을 대표하는 자리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학년대표, 학과대표, 중운위 외에는 대표성을 댈 수 없다고 생각함. 전체공개를 최우선으로 하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학생들 의견 수렴은 학년 대표들이 학년들의 의견을, 과대표가 단과대에게 전달되는 등의 이상적인 단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함. -> 선출직으로써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생대표자라는 바는 동감하지만 한편으로 확운위에서 공청회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단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주체가 평학우가 추가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듬. 중운위와 총장단만 참석한다고 한다면 '중운위는 학교와 한 편'이라는 인식이 심어져있는 상황에서 해당 인식을 강화하는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학우분들도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는 있다고 생각함.
- 중운위 대상 공청회를 진행한다면 단학대회 진행하는 단과대 일정 역시 고려하여, 10일 이전에 중운위 전체공개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대안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확운위 의결에 따라 대상이 총장단+중운위라는 점에서 학교 측에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함. 학교에 학생들의 입장이라며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확운위의 의결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 이를 계속 강력하게 요구할 것임. 다만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임. -> 중운위와 총장단 간의 진행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할 것임. 다만 나중에 최종 거절이 되고 방안을 찾기에는 너무 늦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대안을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횡수보다 어떻게 강력하게 요구할 것인지 그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 너무 강하게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거부할 수 도 있음. 선을 넘지 않는 점에서 최대한 강력하게 하는 방법 고민 중.
- 다른 협의회에서 학교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다른 안건에 대한 것을 걱정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함. 중운위의 이미지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공문같은 방안 말고 더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선 넘지 않는다는 것이 우호적인 관계 유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그 외의 등록금 협의회 등의 추가적인 협의체 마련이 필요한데 협의체들이 무산될 가능성 역시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선을 의미함.
- 의결사항에 대해 전체공개가 아니면 의결사항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12일 것이 공개진행이 어려우면 그날 진행이 아니라 최대한 전체공개가 되도록 기간을 미루거나 하고, 12일 이전에는 중운위 차원의 공개 공청회 진행하는 등의 방식도 괜찮을 것 같음.
- 학교에 전체공개를 요구할 때 왜 실시간이 중요한지, 안건의 성격에 대해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것 같고, 아까 사범대에서 말씀하신 방법도 필요할 것 같음.
- 어떻게든 성사시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방안으로 요구하는 것이 맞을지 지속적으로 검토 중 -> 해당 답변을 학생처에서 전달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총장단에게 전달이 된 것인지 아닌지 신뢰하기 어려움. -> 총장단에게 받은 답변이라고 해당 답변 내용을 학생처에게서 전달받음 하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음
- 안건 상정이 되었을 때, 300명 서명뿐만 아니라 학생 대표자 의결 기구를 통해 의결되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학교 측의 답변을 받는데로 카톡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계속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3. 11월 대표자 선거

- 후보자 추천방식, 강의실/옥외 유세, 공청회 및 개표 등 종합적인 확정 필요
- **후보자 추천방식** : 업체에 견적서 요청해둔 상황, 1000건 이상이 되면 건당 500원 이하로 진행될 것 같음. 학생회비로 집행 가능할 것 같음. 대부분의 회칙 상에서 개수의 경우에는 장벽이 높지는 않은 편이라서 해당 방식이 후보자 등록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함. 견적서 도착하는 대로 토크방을 통해 공유하겠음. 기입내용은 학과/학번/이름/서명란 후보자 소개는 별도로 분량 등을 규정하면 될 것 같음. -> 총학생회 선거가 아닌 타 단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간호대는 교학지원팀과 논의해볼 예정, 자연대에서는 전례가 있기때문에 글로싸인 업체를 통해 진행할 예정
- 추천인 방식은 통일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통일할 것인지 -> 강제로 통일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다만 통일되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함. 결정은 단운위차원에서 -> 투표는 한 번에 진행이 가능하지만 추천인 서명은 건별 진행이라 같이 진행하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건별진행이라 다 따로 예산이 지출될 것 같음. 그렇게 된다면 총학생회비로 단과대 차원의 비용을 다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음. -> 비용이나 예산을 고려했을 때 같은 방식을 채택해도 따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같은 방식이더라도 단과대별 부담은 어느 정도 발생할 것 같음. 다만 최대한 총학생회 측에서의 지원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음.
- SNS 선거운동 : 지난 번 내용 + 관리자 권한은 선관위 측 2인이 권한을 함께 받아서 규정 잘 지키는 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두는 것 추가, 선본 측에서 게시글은 직접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함. 방식은 포스터 및 사진/카드뉴스/영상물 항목으로 구성.
- 카카오톡에 대해 프로필 사진 등까지 규제하는 이유 -> 이전에 이러한 규칙이 있기도 했고, 카카오톡이 개인적인 공간이고,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또한 오프라인 선거에서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있는데, 카카오톡 프로필에 걸어놓으면 24시간이 되어버리므로. -> 온라인 홍보가 주라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음 -> 오프라인 홍보물 자체도 게시할 수 있는 공간 등이 정해져있는데, 카카오톡을 허용하면 친구가 많거나 팔로워가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사적인 공간보다 공용 공간에서만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게시글 총 개수 제한은 없는 것인지 -> 총 개수는 따로 규제하지 않을 예정임.
- 선전물 공유는 게시가 아닌 중선관위에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함.
- 선본이 카카오톡을 통해 학과부별 홍보하는 방식도 안 되는 것인지 -> 온라인 선거 운동 상에서

- 카카오톡이 중요한 공간이지만 중선관위 측에서 관리 및 감독하는 것이 어려운 공간이기도 함. -> 단독방 공지는 선관위 차원에서만 허용하고, 해당 내용은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 공유가 아닌 선거 독려 관련 게시물 공지가 더 맞다고 생각함.
- 1안 : 선본에서 관리자 권한을 갖고 홍보물 발행 / 2안 : 중선관위에서 관리자 권한을 갖고 홍보물 대리발행 및 선본에서는 게시글 공유 가능 / 3안 : 선본과 중선관위가 공동관리자 권한을 갖고 선본에서 홍보물 발행, 선관위는 감독 -> 1안 : 1단위 / 2안 : 1단위 / 3안 : 6단위 / 기권 : 1단위 -> 3안으로 결정
 - 관리에 있어 권한이 없도록 하여 문제가 생기더라도 선본 측의 잘못으로 판단 및 제제가 쉽다고 생각함, 권리를 부여하는 만큼 그에 따라 선본이 책임을 지면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 선거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선관위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
 - 가능한 한 확인하는 시간에 최대한 공유 및 요청하는 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롤미팅 때 논의할 예정
 - 단선이라면 큰 어려움이 없지만, 단선이 아닐 경우를 고려했을 때 중선관위 측에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강의실유세/옥외유세** : 기본적으로는 기회는 다 열어두고 선본이 선택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음. ->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및 소규모 대면수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옥외유세를 허용하는 것이 맞을지. -> 선관위가 원활한 선거를 위해 힘써야한다면 학교에서 비대면을 진행한다면 제재하는 것이 좋지만, 부분적으로 소규모 대면수업이 진행된다면 소규모로 제한하더라도 옥외유세를 열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1안 : 옥외유세 제한적으로 하자 / 2안 : 옥외유세 없애자 -> 1안 : 4단위 / 2안 : 5단위 -> 초안은 2안으로 결정, 롤미팅에서 요청한다면 그때 좀 더 이유들을 들어보고 반영할 수 있도록
 - **합동공청회** : 11월 20일 금요일 정도로 예상 중, 선본, 언론사 등에서 다양한 인원이 참여함. 필요한 인원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사전질의 최대한 받고 당일 현장에서는 사회자 및 진행 인원, 후보자 외에는 출입 제한하여 줌으로 진행 및 페이스북 라이브 송출.
 - **정책자료집** : 선관위에서 배부하는 것으로 공청회 때 배부하는 자료임. 온라인 진행이 주가 되므로 PDF 파일만 올리고 인쇄물 제작 부수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기표소** : 학사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음. 대면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기표소 수를 줄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 -> 간호대학의 경우에는 이론수업 전면 비대면 결정이라 기표소 설치가 굳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음. 단위별 1~2개 정도로
 - 기표소의 경우 중간고사 이후 학사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있지만, 최소화를 통해 예산 절감 필요
 - **개표** : 전면 온라인 진행 / 현장진행이라면 후보자와 선관위만 참석하는 방안 -> 당선사 측면과 당선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투표 공정성을 위한 개표 참관인 등을 고려했을 때 일부 인원만 참석하는 방안이 나올 것 같음. 순서는 과/단과대/총학생회 순서, 연장 투표 시에는 연장안하는 단위는 이를 차에 진행하고, 연장 단위는 셋째 날에 진행함.
 - 1안 : 개표참관인&선관위만 참석하여 개표, 온라인 진행 / 2안 : 개표참관인+후보자2인 참석하여 현장개표 진행 및 온라인 송출 -> 1안 : 1단위 / 2안 : 6단위 / 기권 : 1단위 -> 2안으로
 - 투표자에 대해 경품 추첨 진행 여부 : 경품이 회유책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선거 무산 방지 및 홍보, 학우분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함. 온라인을 주력으로 한 선거가 올해 처음이라는 점과 온라인 중점이라는 특성상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경품 추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고가의 물품이 아니라 좀 더 저가로 다양한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좋을 것 같음. / 방식은 좋은 방식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온라인 선거를 해보기도 했고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정말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효과는 있을 것 같음. 좋은 방식이라 생각되지는 않아 타 단과대에서 나온 의견처럼 투표독려에 다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목적성은 좋지 않지만 투표율에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저가의 물품을 하면 오히려 투표율이 저조할 것 같아서 진행한다면 메리트 있는 고가의 물품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 -> 1안 : 경품 추첨 진행 x / 2안 : 투표율 저조시 경품 추첨 진행한다. / 3안 : 투표율 관계없이 경품 추첨 진행한다. -> 1안 : 3단위 / 2안 : 0단위 / 3안 : 6단위 -> 미참석 단위 표 고려하여 토크방에서 다시 투표 진행할 예정
 - **투표 홍보 방식** : 페이스북 유료 광고 ->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에 비해 접근률이 엄청 높지는 않다고 생각함. / 카카오톡 투표 독려 / 온라인 투표 진행이니까 투표 참여 이후 마지막에 푸양이를 활용하는

등으로 투표 인증 릴레이 같은 방식의 문화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기타 안전

- 회의 일정 : 10월 12일에는 회의 진행 O
- 시험 전주인 10월 19일 & 시험 마지막 날인 10월 26일 : 19일 회의는 진행 O, 26일에는 시험으로 인해 중운위 회의는 없음
- 리더스포럼 이후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않아서 피드백을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추가 질의문이나 2학기 단위요구안도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이번 주 내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인문대는 이번 주 내에는 어려울 것 같고 주말 내에는 가능할 것 같음. -> 10월 13~15일 중으로
- 중감위 : 개강 후 28일 이내에 서류 제출을 받는데, 단위별로 총회의 일정이 이후에 잡힐 수 있는데 예산안 인준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중감위 회칙에 따라 예산안을 미리 제출해야하는지 ->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중감위원장에게 전달해주시면 중감위 차원에서 인수인계하여 수정되어야할 것 같음
- 확운위 피드백 : 산하위원회에서 답변을 할 때 성평위원장나 졸준위원장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유감을 표명함, 구기체육분과장 기타안전에 대해 타대학에 물어보니 그 어떤 곳도 대관하는 곳이 없고 그나마 진행하는 곳이 4년제 한군데 인데 체육과 과 사람들만 사용 중이라고 함. 그래서 방역수준을 내려서 해당 안전 내용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약속해주신 사항이 많은 것 같아 지켜주시면 좋겠음, 전 부총학생회장 통장사본 공개 및 공약이행률 카드뉴스 바람, 속기록 업로드 시기, 부서들의 연락처 취합 시 개인정보 유출 없도록 고려 바람.
- 확운위 속기록은 다음 주 중 업로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리더스포럼에서는 다른 단위에서는 질의를 못했다는 점과 간담회는 의결을 통해 통과된 주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공청회와 간담회는 따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공청회를 요구하여 진행하고, 해당 날에 시간이 남는다면 함께 추가적인 내용이나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리포 이후 추가적인 간담회 일정은 2~3주 기간 내에 3번의 만남이 성사되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울 수 있음. 우리가 얻은 기회를 최대한 알차게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였음